



JBMN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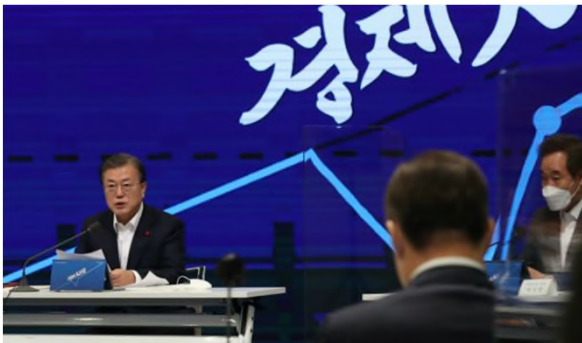
JEONBUK MICE DEVELOPMENT ASSOCIATION NEWSLETTER

발행인 김기정 | 편집인 하순형, 박유정

2020. 12 Vol. 8

JBM NEWS

정부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12월 17일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3.2% 플러스 반등'을 목표로 설정한 정부가 '경제와 방역 간 균형'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피해 최소화화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제약 상태에서 가능한 새로운 내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12월 8일 "최대 4,400만 명분의 외국 개발 백신을 선구매해 내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들여오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시기 및 우선 접종 대상 등은 코로나19 국내 상황과 외국 접종 동향 및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치료제와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해 국내외 임상 시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시험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

해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인을 확대하는 등 의료 체계 대응력 강화추진과 함께 정부는 '방역 친화적인 소비 여건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며, 방역 안정을 전제로 내년에 추진하는 '4+4 바우처 쿠폰'의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외식쿠폰 '배달앱' 적용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을 온라인 공연 감상과 문화예술 강좌 수강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수산물쿠폰도 온라인 구매에 적용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체육쿠폰으로 온라인 PT 등 실시간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쿠폰 사업이 2조 원 정도의 소비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미사용된 소비 쿠폰의 경우 내년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돼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소비 촉진을 위한 쿠폰 등 사업 시행 전제인 '방역 안정' 판단 기준과 관련해 소비 쿠폰 사업 시행과 중단, 재개 여부를 중앙방역대책본부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방역 친화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편으로 외국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 이용객의 국내 공항 일시 착륙과 출국장 면세점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나,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최근 도입된 내국인 대상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도 예상보다 저조한 탑승률을 보여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문체부, '국제관광 협력정책 토론회' 온라인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11월 25일 오후 2시, 코로나19 시대 국제관광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를 준비했다.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서 국제 협력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방역과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박양우 장관은 "관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국제연대 강화 방안으로 ▲각국 방역 경험 공유 및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여행객 신뢰 회복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수요 변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 ▲국제관광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안전하고 끊임없는 여행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유엔 세계 관광기구 ▲트립어드바이저 ▲유럽여행위원회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유수의 국제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안전관광'을 주제로 전 세계 백신 개발 현황 및 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폈다.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위기를 계기로 업계 자체적으로도 안전 관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광산업 체질을 개선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여행시장 변화로는 트립어드바이저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적지는 국내 혹은 인근 지역, 동반자는 가족, 액티비티는 야외활동이 높은 선호도를 얻었다. 트립어드바이저 사라 매튜스 아태지역 마케팅 총국장은 "고객들이 언제, 어디로 여행을 떠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며 "야외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신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 기술의 관광분야 활용 방안으로는 노르웨이 아비노르 공항공사와 에티오피아항공이 출시한 비접촉 셀프 체크인 사례가 소개됐고, 국경 폐쇄로 인해 AR과 VR등 가상여행이 증가하는 추세를 짚어냈다. 이어 자동화 시스템 도입,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의 의견도 나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국제관광 협력정책 토론회'를 해외 유수의 인사와 기관들이 참여해 관광산업 동향과 전망, 주요 정책 과제 등을 논의하는 국제 담론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International Tourism Cooperation in the Era of COVID-19
2020 국제관광 협력정책 토론회
International Tourism Cooperation in the Era of COVID-19
코로나19 공존시대의 국제관광 협력방안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Yang-woo PARK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invited experts for their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as speakers despite their demanding schedules.

부안 세계 쌀 문화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용역 전문가 간담회



일 시 : 2020년 10월 15일(목) 16:30

장 소 : 전주밥상 다잡수소

주 최 : 부안군

주 관 :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주요내용

- 부안 세계 쌀 문화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 및 발표
- 부안 세계 쌀 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비대면 시대 전라북도 MICE산업 발전과 DMO구축을 위한 세미나

일 시 : 2020년 12월 11일(금) 16:00

장 소 : 그랜드힐스턴호텔 데이지스홀 소연회장

주최·주관 :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후 원 : 전라북도

주요 발언내용

전라북도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문종선 본부장

협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오늘 강연이 한 조직의 역할을 하며 목적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것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장영훈 부회장

현재 서울관광재단에서 상생하는 활동을 많이 하듯, 단독적인 것보다 기존에 있는 단체들과 서로 상생관계를 만들어간다면 발전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김대중컨벤션센터 박찬준 실장

현재 해외까지 진출하며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타 지역 전시장에 비해 전북의 전시장은 아쉬운 점이 많다. 전북은 넉넉치 않을 뿐더러 공무원이나 여러 조직들이 이야기에서 실행단계까지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전라북도 전시장에 관한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다.

전)KBS전주방송총국 김명성 보도국장

어떠한 시설을 지었을 때, 운영에 대한 수익 항목을 평가하는데 시의회나 정치권에서 실시한 제대로 된 평가에서 공통점이 있는지와 그것들이 이후 공감을 얻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다.

(주)원플러스원 정규화 대표

현재 전시는 대부분 모바일로 하는 전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이 상황이 지나도 전시는 온라인으로 많이 이뤄져 오프라인 전시시장과 미팅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미팅은 많이 줄어들 것. 고부가가치 행사에 컨벤션장이랄지 커다란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다면 변화되는 트렌드 속에서 인센티브 쪽에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것. 앞으로 여행분야는 유명한 곳보다는 힐링을 목적으로 특별한 곳에서 즐기고 가게 될 것이며 이 분야는 현재 인프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하여 살릴 수 있는 분야임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답변] 한국생태관광협회 김 현 이사

- 도의원과 같은 의사결정권자들에게 MICE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줘야 함.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그 시설로 하여금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간접적 수입을 생산하는 자산임을 설명하기 위해 MICE업계계 계신 분들의 도움 필요
- 컨벤션센터가 365일을 전시한다고 보고 가동률을 따져볼 때 보통 70~75% 정도를 거의 100%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모르는 외부인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언론에 노출시켜줘야 함.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예산의 구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등을 가시적으로 계량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어야 이러한 부분을 기자국이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



관광객 정보활용 '스마트관광' 도약

국내·외 여행 패턴이 개별여행(FIT)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관광의 일상화로 전북도가 스마트관광 구축을 위해 전주한옥마을과 호남선 여산휴게소(순천 방향) 등에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총 31억7천만 원을 투입기로 했다. 전주한옥마을 주요지점 관광객 계수를 측정, 3D지도를 통한 혼잡 여부의 파악·활용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0월 21일 전주대학교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실감형 관광콘텐츠 연구단, 전주대학교, 전주시 등과 함께 '국가연구 R&D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전주대는 전주한옥마을을 현황 조사와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관광객의 요구와 만족도 조사 등을 맡게 됐으며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방문객 만족도 제고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략 등도 수립한다. 세부적으로는 전주한옥마을과 호남선 여산휴게소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총 3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스마트 관광 활성화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 R&D 사업은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의 관광 디지털 트윈 기반의 관광 전·중·후 의사결정과 체험(추억)을 향상하기 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과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며, 랜드마크 투어, 가상공연을 전주한옥마을 홈페이지와 연계해 사전 체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VR 콘텐츠 제공과 휴대폰 앱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AR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트윈 실현을 위해 전주한옥마을을 주요지점 관광객 계수를 측정과 3D지도 구축을 통해 혼잡도 여부를 파악·활용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감형관광콘텐츠 연구단은 이번 사업을 위해 전라북도, 전주시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콘텐츠 확보 및 홍보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도 연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전북 일자리경제분야 뉴딜사업 추가 발굴

전북도는 12월 1일 일자리경제분야와 관련하여 도내 1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경제분야 전북형 뉴딜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북형 뉴딜로 늘어나는 일자리, 생동하는 전북 경제'라는 비전 설정과 향후 5년간 추진할 '전북형 뉴딜 사업'경제분야 뉴딜 추진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선 도 자체 35개 사업과 전북연구원 6개 사업, 시군 제안사업 등의 정책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하고 참여기관들의 전문과 재설계를 통해 추진계획의 완성도를 더욱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사업으로는 디지털 분야는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 전환 지원, 스마트 상가 및 슈퍼 육성, 수출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온라인 비즈니스 구축이 담겼으며, 그린 분야는 스마트 산단 제조 혁신 기반 구축, 산업단지 공동혁신 연구개발 사업,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등 친환경 산단 조성 및 혁신금융 스타트업 육성 목표를 설정했다. 안전망 분야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재기 지원, 특례보증 자금 지원과 함께 2025년까지 디지털 그린 뉴딜형 일자리 28,282개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청년 일자리, 전기차 산업 일자리, 청년 나래 일자리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530억원 펀드 조성, 전북형 BIG 3(소재, 금융, 미래차) 혁신창업 패키지 등으로 연령별 창업 1,300건, 창업기업 990개사 지원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전북형 뉴딜 인재양성 캠퍼스 혁신파크, 새만금 뉴딜 인재양성 클러스터 구축 등 사업도 포함됐다.

정부, '그린뉴딜·신산업' 새만금 개발 박차 가한다

정부가 새만금 지역을 한국판 뉴딜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하고, 그 역할과 개발 목표 등을 변경했다. 11월 2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관계기관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2월중에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공공주도로 매립하는 첫 사업인 만큼 향후 개발사업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를 유지할 예정이다.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와 관련, 지난 10년간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는 새만금 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중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추가대책을 발굴, 적기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가간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대책(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농업용수 공급은 토지용도별 필요수량, 작물생육에 적합한 염분농도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문가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 가로지르는 첫 간선망 '동서도로' 개통

새만금 서쪽(신항만)과 동쪽(새만금-전주고속도로)을 잇는 내부 간선망인 동서도로가 개통하면서 내부개발 본격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1월 24일 개통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역사적인 동서도로의 개통 축하와 함께 새만금의 비약적 발전을 격려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새만금 신항만)에서 김제시 신평항까지 20.4km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난 2015년 11월 착공했으며 총 사업비 3,637억 원을 들여 5년 만에 개통했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은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시설과 함께 내부개발을 앞당기고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서쪽의 새만금 신항만과 동쪽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해 새만금과 내륙지역 간 물적·인적 자원 수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모든 지역이 어디서든 20분 내에 달을 수 있게 돼 울해 말 착공을 앞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 내부개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 역할로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중심지 도약에 초석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전주 한옥마을, 국내 첫 관광트램 도입

전북 전주한옥마을에 국내 최초로 관광 트램이 도입된다. 전주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11월 3일 전주시청에서 '전주 한옥마을 관광 트램 도입을 위한 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총 360억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관광 트램 도입 기본구상 용역을 거쳐 공사를 시작하고 차량 제작에도 들어갈 방침이다. 전주한옥마을 관광 트램은 오는 2023년까지 차량 7대로 한옥마을 일대 3.3km를 순환할 예정이며 트램 차량은 전기배터리를 탑재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선을 설치하지 않도록 제작된다. 트램 1량의 길이는 9m로 25명이 탈 수 있는 규모에 시속 10km 가량으로 달린다. 트램의 외관은 한옥마을 경관과 어울리도록 제작되고, 내부에는 레스토랑과 카페도 갖춘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현재 추진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및 자문, 차량 도입, 인증 시험 등을 한다. 특히 자체 보유한 국내 최고의 트램 기술을 활용해 무가선 트램 설계와 제작을 맡기로 했다. 시는 한옥마을에 관광 트램이 도입되면 관광지로서 매력과 친환경 도시로서 전주의 이미지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관광트램 1호인 한옥마을 순환선은 국가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상징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심각한 교통난 해소는 물론 여행객들에게 고즈넉한 한옥마을을 찬찬히 둘러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하게 즐기는 전라북도 언택트 관광지 8선

서해 낙조가 아름다운
1 김제 망해사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10길 94



사계절이 살아 숨쉬는
2 익산 용안생태습지공원
전북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313-13



야간 볼거리 명소로 재탄생
3 정읍 정읍사문화공원
전북 정읍시 시기동 81-2



청정한 자연 속 휴식공간
4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서원길 362



거친 역사의 흐름을 담은
5 남원 교룡산국민관광지
전북 남원시 산성순환길 714



살아있는 갯벌생태체험장
6 부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전북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170



바다 절경을 보며 산책하는
7 군산 비응 마파지길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27



창포가 만들어내는 푸른 물결
8 완주 고산 창포마을
전북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385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사무국

www.jbm-mice.com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37(중화산동2가)

T. 063-715-0880 Fax. 063-252-0701

E. jbm7150880@naver.com